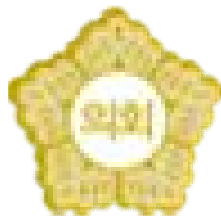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4. 12. 20.(금) 10:00

# 5 분 자 유 발 언

(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임 채 오 의 원)

## - 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임채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참여한 의원연구단체  
‘주민자치정책연구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울산 북구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 중심의 조직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농소3동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울산 최초로 8개 동 전체로 주민자치회를  
확대·운영하며 주민자치 실현에 한발 앞서 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 주민자치회는 제도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 참여 저조, 재정적 자립 문제 등 제도만으로는 구현되지 않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면 적절한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계획 수립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축제 및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주민자치·협의·수탁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탈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복구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 7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2022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대신할 지역 단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나  
박람회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3천 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행사로  
21회째 이어졌다 지난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주민자치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광주, 대전, 부산 일원에서 진행한 벤치마킹에서도 박람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폐지로 인해 주민자치회 간 올바른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경상남도의 ‘주민자치박람회’처럼 지역 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새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기금 조성 등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벤치마킹에서 만난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주민자치회는 100여 년의 마을 역사를 수집, 기록하여 최초로 민관협력형 마을기록관인 ‘마을을 담는 집’을 개관하며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지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관리할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근본적 대책 없이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에만 기댄다면  
주민자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뒷받침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자생력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북구청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심어도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씨앗을 잘 길러내기 위한  
북구청의 아낌없는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